

6

2003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제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민수가 · 사도행전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6

충현의 만나

2003

가정예배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민수기 · 사도행전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6월의 더위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사 49:10)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본향(本郷)에 이르기 위하여 황량한 광야(廣野)를 지나가야 하는 순례자들입니다.

그 순례의 길에는 언제나 굶주림과 목마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엄습하는 그 고통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것들은 결코 부정적인 요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악한 환경은 순례자로 하여금 광야에 머물러는 나태한 마음을 제거하고 영원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마침내 그분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본향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그리고 그 속에 존재하는 도전들은 결코 위협적이거나 두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그분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날에도 자기의 백성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는 영원한 아버지의 위로를 생각하십시오.

점점 더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늘과 샘물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6월의 더위가 오히려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사 49:10)

2003년 6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성관

사도행전 서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저술한 두 번째 책으로서, '데오빌'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모든 독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왔고 받아들인 복음의 메시지가 참되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이런 취지에서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온 세상에 전파되었는지를 설명하고, 또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까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복음전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사도행전의 정확한 기록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기간이 주후 57년에서 주후 62년 사이임을 고려해 볼 때 사도행전은 대략 주후 59년에서 64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큰 구원의 능력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이 한 순간에 삼 천명이나 회심(回心)하는 기이한 구원의 역사 및 그것을 필두로 하여 계속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힘차게 전파되었으며 수없이 많은 죄인들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었다. 이처럼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생생하게 보면서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복음이 우리 각 개인에게만 구원의 능력인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이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榮光)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비록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수적인 열세에 놓여 있었으나 참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그 영광스러운 자태(姿態)를 드러내었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였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교회는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으며 거룩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행 2:47, 5:11).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본래 지니게 되어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 정말 두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도시와 이 세대의 교회가 그런 영광을 얼마나 간직하고 있는지 탐사(探查)해야 한다. 이런 작업을 성실히 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린 거룩한 영광으로 인하여 근심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

을 짓고 하나님께 나아가 교회의 참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사고 눈물로 간구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복음 전도 사역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적 존재 이유와 사명임을 다시 한 번 깨닫고 확신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터가 세워진 직후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복음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이 세상에 유익을 주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교회와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하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분명히 사도행전은 복음과 교회의 놀라운 승전보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을 저리게 만들고 우리를 애통하게 하는 소식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눈물과 탄식과 기도로 겸손히 이 책을 읽도록 하자.

내용분해

1. 교회의 시작 / 1:1-2:47

- 1)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승천(1:1-14)
- 2) 맛디아를 선택함(1:15-26)
- 3) 오순절의 성령 강림(2:1-41)
- 4) 초대 교회의 생활(2:42-47)

4) 이디오피아 내시의 세례(8:26-40)

5) 사울의 회심(9:1-31)

6) 베드로의 팔레스틴 전도와

첫 번째 이방인 개종자(9:32-11:18)

7) 안디옥 교회의 설립(11:19-30)

8) 헤롯 아그립바 1세의 박해(12:1-25)

2. 예루살렘 교회 / 3:1-5:42

- 1) 예표적인 이적과 설교(3:1-26)
- 2) 유대 지도자들의 첫 번째 반대(4:1-37)
- 3)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5:1-16)
- 4) 유대 지도자들의 두 번째 반대(5:17-42)

4. 소아시아와 유럽 교회의 확장 / 13:1-21:17

1) 제 1차 전도 여행(13:1-14:28)

2) 이방인 교회의 문제와 예루살렘 회의(15:1-35)

3) 제 2차 전도 여행(15:36-18:22)

4) 제 3차 전도 여행(18:23-21:17)

3. 박해를 통한 팔레스틴 교회의 확장 /

6:1-12:25

- 1) 일곱 집사를 세움(6:1-7)
- 2) 교회에 대한 핍박과 스데반의 순교(6:8-8:3)
- 3)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됨(8:4-25)

5. 로마 교회의 확장 / 21:18-28:31

1)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의 거절(21:18-26:32)

2) 로마에서의 복음의 영접(27:1-28:31)

레위 지파는 독자적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의 기업 중에서 48 성읍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렇게 분배받은 48 성읍 중에서 여섯 성읍은 부지(不知)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마흔 두 개 성읍은 일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독자적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민 18:20 참고). 하나님의 이런 배려 속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읍에 거하면서 백성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아론 자손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며 영혼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섯 개 성읍을 지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피하게 하라”(11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본의 아니게 살인한 자는 그 곳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도피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한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구원받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도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혜택을 똑같이 누렸습니다(15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표(豫表)합니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영원하며 안전한 도피처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십자가에 날마다 거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 우리는 각 지파에 분배된 기업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즉, 요셉 자손의 가족 중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 슬로브핫에게는 딸만 있었는데, 만일 그들이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아서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결국 그 땅도 다른 지파로 이전(移轉)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이 문제를 모세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6절). 이 말씀대로 슬로브핫의 딸들은 자기 지파 사람들과 결혼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누어주신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가 신앙 공동체의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할 때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대답한 것을 봅니다. 이처럼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은 우리 신앙의 규범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또한 슬로브핫의 딸들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가지 않고 오직 자기 지파 사람들과 결혼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순종하려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순종함으로’ 해결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 우리가 특별히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은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은 비록 삼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일지라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으면 결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곧, 그들의 연약함을 충고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고, 그래야 복음의 참 증인이 됩니다. 또한 주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땅 끝도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어야 함과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보여 주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성격이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많은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개인적인 행복과 성공을 꿈꾸고 있었지만, 주님의 계획은 그들이 세상의 멸시와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얻게 될 미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는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걸어야 할 길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의 죽음에 동참해야 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권세자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1-4),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여(14-36)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장면(37-47)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장차 성령이 임하실 것과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몇 날이 못 되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임을 강조합니다(욥 2:28-32). 또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여, 구약에서 다윗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분으로 지목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시 16:8-11).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을 또 인용하여,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셨고 이제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선포합니다(시 110:1). 바로 이것이 수 천 명의 사람들을 한 순간에 회심케 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온 세상을 향해 우리가 외쳐야 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게 하소서. ② 충현 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베드로와 요한이 앓은뱅이 된 자를 고친 이적과(1-10), 그 이적을 구경하려고 모인 군중 앞에서 전한 베드로의 설교(11-26)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앓은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6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앓은뱅이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걷게 되었으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그런 이적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굳은 믿음과 그 이름의 권세가 실제로 있었고, 그를 통하여 그 이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생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모시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적을 행한 자는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심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베드로는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하게 보이셨고(13-15), 앓은뱅이가 그를 믿음으로 나았으며(16),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적을 디딤돌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어야 하는 선물은 회개와 구원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내 안에 모시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투옥 된 사건과(1-22),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이(32-37)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는데, 사도들을 투옥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의 종교지도자들과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가르침을 전파하지 말라고 사도들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19,20절). 사도들은 관원들의 위협에 이처럼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세상의 그 어떤 제재도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이런 태도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 곧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제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세상의 학문에 뛰어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힘입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핍박하는 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용기를 주십니다(마 10:17-20).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핍박하는 자 앞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계와 사도들에 대한 새로운 박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전 재산을 팔아 교회 앞에 바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재산 중에 일부를 감추어 두었는데, 이 일로 두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죄목은 성령을 속인 것이었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3절).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과연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곧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거룩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회초리를 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을 경외(敬畏)할 줄 알아야 합니다(11절).

이런 가운데 초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계속 나타났고(12절 이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다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주어 사도들은 감옥을 빠져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자체 내에서도 가말리엘 같은 큰 교법사(敎法師)가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39절)이라고 반성합니다. 그 만큼 사도들의 복음전파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전파 현장에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지금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성도들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초대 교회의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섬겨야 할 사람들은 많은데 사도들이 그 일을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찼던 것입니다. 각처에 흩어져 살다가 유대 땅에 돌아온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고, 사도들은 이 일을 공평하게 처리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헬라 문화권에 태어나 그곳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고, 따라서 당시 교회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供饋)를 일삼는 것이" (2절) 자신들에게 옳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4절)에 전념하기로 하고, 구제의 일을 대신해 줄 사람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바로 일곱 명의 집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자격조건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교회의 일꾼될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일꾼들의 자격조건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인지를 점검해보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겠습니다.

주의 일꾼의 자격조건은 세상 일꾼의 자격조건과 다릅니다.

기도 제목 / 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 일을 잘 감당했으며 복음 전하는 일도 충성스럽게 행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를 시기하여 신성 모독죄로 그를 모함했고, 그는 당시 종교지도자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회 앞에 고소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을 압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행 6:10).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지혜와 담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수많은 무리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시며 놀라운 용기와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자 그들은 흥분하여 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말하자, 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를 성밖으로 내친 후에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은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제반 일을 맡은 집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목회자나 선교사, 또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복음 전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적과 표적도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의 빌립의 가르침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던 빌립에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 '가사'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지시합니다(26절). 가사 지방은 인적이 드문 광야였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지시는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내려갔고, 거기에서 복음을 들어야 할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권세 있는 내시였습니다. 그 내시는 혼자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31절). 이것이 그 사람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을 장서(藏書)로 가지고 있고 혼자 읽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그 의미를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을 먼저 깨달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읽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설명하자, 그는 즉시 복음을 믿게 되었고 세례 받기를 원했습니다. 일껏 보기에 이 사건은 단지 내시 한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된 작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후에 에디오피아 전역에, 아니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성령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받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스데반의 순교현장에서 그의 죽음을 당연시했던 핍박자 사울이 예수
의 추종자들을 결박하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갑
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의 추종자들을
제거하는 일을 매우 의로운 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은 이런 사울을 만나 주셨습
니다.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강박한 사울을 제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
님은 사울을 친히 만나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사울
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포박하
려 왔던 그가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사울은 '위험한 사람'이었으나, 이제 변화된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함 받은
그릇이었습니다(15절).

당시 사울은 율법의 외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중에서
도 특별히 열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
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들도 마
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이며 영적인 흑암에 빠져 우상을 섬기던 우리를 하
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증거의 그릇'으로 삼기 위함임을 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택해주신 이유는 우리를 '증거의 그릇'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께 부름 받은 목적을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
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자체가 거의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2절). 이 정도면 상식적으로 볼 때 고넬료는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넬료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자는 베드로를 초대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명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여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자세히 설교합니다. 고넬료도 신앙이 좋은데 왜 굳이 베드로를 초대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적인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온전히 믿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기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眞髓)를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을 정확히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확고히 서 있습니까? 한편, 베드로에게 보여진 환상(9-16절)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여줍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세계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복음 안에 굳게 서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 우리는 복음이 이방 땅에 증거 되는 초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전반부(1-18절)는 고넬료의 개종사건 이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한 사건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처럼 많은 유대 신자들 역시 이방인에 대하여 배타적이었던 것입니다. 유대 신자들은 민족적, 종교적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과 성령의 강림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과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증거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후반부(19-30절)에서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활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있었던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각지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고,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에서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온다는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즉각적으로 바나바를 파송하였고 바나바는 사울을 불러 함께 사역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원을 힘입어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를 입은 안디옥 교회는 그 후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를 돕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② '단기 선교'를 위해 모든 교구원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을 무렵, 예루살렘 교회는 또다시 박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헤롯이 교회의 주요 지도자들을 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헤롯의 교회 탄압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박해보다 더 노골적이며 가혹했습니다. 여기에서 '헤롯'은 예수의 탄생 때 유아학살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왕(마 2:16)의 손자로, 헤롯 아그립바 1세를 가리킵니다.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 지도자를 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헤롯은 먼저 12사도 중 하나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일을 보고 기뻐하자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잡아서 투옥시켰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죽음으로써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헤롯의 계획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함으로써 실패하고 맙니다. 본 장에서 우리는 당시의 교회가 박해를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박해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7절, 23절). 기도는 성도와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역사는 크고 놀랍습니다(렘 33:3). 한편,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갑작스런 죽음을 당합니다. 헤롯의 죽음은 박해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교회의 승리였습니다. 헤롯의 죽음 이후 교회는 더욱 부흥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막 11:24).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교회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이방 지역에 설립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을 통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바울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것은 바울의 선교 사역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본 장은 바울의 제1차 선교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이방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첫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사람의 편견과 판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첫 선교는 구브로섬과 소아시아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수만 있으면 먼저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였습니다. 본문은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48절).

세계선교는 주님의 뜻이자 명령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편견과 판단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 각 교구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선교의 열매가 눈에 띄게 많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박해도 심해져 갔습니다. 본문은 박해가 극심하여 선교팀이 생명의 위협까지 당했음을 보여줍니다. 본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1-7절)는 이고니온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주의자들과 그들과 결탁한 지방 관리들의 핍박으로 그곳을 피해 루스드라와 디베로 사역지를 옮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반부(8-18절)에는 루스드라에서 사역하던 중에 일어난 사건, 곧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오해하여 섬기려고 하는 소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후반부(19-28절)에는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될 뻔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의 일행은 1차 선교사역을 한 여러 지역을 다시 순회하고 무사히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1차 선교사역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성령의 주도로 본격적으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 자신의 변화입니다. 바울은 본래 철저한 유대주의자로서 열심으로 복음을 탄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신이 죽음의 위험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셋째, 유대인과 이방인의 핍박입니다. 선교지 곳곳에서 유대주의자들과 이방인들의 핍박이 끊이지 않았습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힘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한 것이었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핍박과 고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기도 제목 / ① 복음을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소서.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율법적인 전통에 젖어 있던 유대인 신자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와,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간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문의하기에 이르렀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많은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토론이 무르익을 무렵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선포했습니다(11절).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의 성령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회의는 베드로의 변론과 함께 야고보의 변론으로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당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자 회의의 의장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의 변론과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토대로 이방인 전도의 당위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주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율법의 무거운 것으로 괴롭게 하지 말 것을 말했습니다. 다만 이방인 성도에게 신앙의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몇 가지 금기사항만 정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초대 교회로 하여금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게 하였고, 이신칭의(以信稱義)의 원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로 확립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회의의 결과 바울의 이방 선교의 당위성 및 정당성이 강화되었고, 이후 바울은 전도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은 모든 민족과 열방에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교회의 모든 기관과 회의가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은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고 제2차 선교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는 제1차 선교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 방향을 바꾸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비두니아 지역으로 북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길마저도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바울의 발길을 유럽 쪽으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바울의 전도 사역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에 따른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누가는 본문에서 '성령' (6절), '예수의 영' (7절), '하나님' (10절) 등의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전도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썼는데, 이런 전도자의 순종과 확신 있는 신앙적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든 전도자들의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잠 16:9).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일과 방법을 주께 물어야 할 것이며, 주께서 뜻을 보이실 때는 힘써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 역시 바울의 제 2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를 떠난 바울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이자 발칸 반도의 관문이요 요충지였던 이곳을 바울은 유럽 복음화의 전진기지로 삼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행해진 전도 활동이 본 장의 첫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1-9절). 이어서 본 장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데살로니가를 빠져 나온 바울이 베뢰아에서 얻게 된 전도의 결과를 언급합니다(10-15절). 베뢰아인들은 신사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끝으로 본 장의 후반부에는 아덴에서의 바울의 전도 사역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16-34절). 아덴에서는 단지 몇 명의 사람만이 복음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 장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바울의 복음 증거를 방해했는지 알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점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당시 헬라 세계의 사상적 중심지였던 아덴에까지 전파되어 장차 전 세계로 확산될 기틀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그의 설교의 기초는 언제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지식과 변론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핍박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각 나라 가운데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상과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의 미약한 선교 결과에 낙담한 바울 일행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나 도덕적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한 절망의 도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본 장은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상업과 교통 및 정치의 중심지였던 부유한 항구 도시 고린도에서 바울 일행이 행한 선교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1-17절). 실의에 빠져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그의 사역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10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이런 격려와 위로가 늘 함께 합니다.

주님의 이런 격려를 힘입고 바울은 3년에 걸친 제 2차 전도 여행의 절반에 해당되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에서도 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부패하여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해 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또한 오늘날의 복음 전도자에게도 신실함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을 배웁니다(9,10절).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바울은 마침내 에베소를 거쳐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고 제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18-23절). 바울의 전도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의 전도 사역도 바울의 사역처럼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행 19:9).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바울의 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거의 2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곳의 성도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1-7절). 그곳에서 바울은 주의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행함으로써 많은 결신자를 얻었습니다(8-20절).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 숭배자들로부터 결정적인 방해로 받아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21-41절).

진실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와 동시에 불의한 자들의 강력한 방해와 핍박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교회와 성도들이 풍성한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될수록 사단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훨씬 더 극렬하게 복음을 핍박하고 대적하기 때문입니다(요 15:18-19).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더불어 악한 자들의 방해나 핍박을 예상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이 일어나 방해하고 핍박할 때에 지혜롭게 처신하며 인내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에베소에 참된 복음이 전해지자 우상 만드는 자들이 사도들을 배척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십자가 복음의 진리에는 관심도 없었고 오직 자기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대중 심리를 자극시켜 사도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과연 어느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이익입니까, 아니면 복음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행 8:10).

기도 제목 / ① 참 승리와 복으로 이끌어 가는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를 통해 전교회가 하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앞 장 후반부에 언급된 바 있는 우상 숭배자들의 소요사태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본 장에는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서 드로아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과(1-6절),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소생시킨 사건(7-12절), 그리고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여정과(13-16절),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17-38절)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바울이 자신의 앞길에 환란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22-24).

바울의 이런 자세는 오늘날 모든 복음 전도자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아울러 바울의 이런 고백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언제나 우리 자신의 행복과 안락을 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철저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신앙을 견지하도록 촉구합니다(빌 3:7-9).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이런 열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관련하여 이런 태도와 심정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에 따르는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자 합니까? 만일 우리에게 이런 심정과 태도가 부족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며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눅 9:24).

기도 제목 / ① 복음의 정수(精髓)인 십자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강기업 단기 선교사(스리랑카)가 맡겨진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밀레도에서 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여행한 경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교회의 유익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계속 힘차게 내딛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의연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바울은 공연한 고집이나 영웅심 때문에 결연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마저 바치려는 굳은 결의 때문에 바울은 주위 성도들의 만류를 뿌리치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울! 우리도 주님의 뜻이라면 고난도, 사랑하는 가족의 만류도 상관하지 않고 바울처럼 맹렬하게 복음 전파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 선교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고하였는데, 그는 자신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고백하여 듣는 모든 이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19,20절). 복음 전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 사역의 열매를 거둔 이후에 그 모든 사역과 성공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고난도 따르고 핍박도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이처럼 승리의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더욱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기뻐합시다(행 5:41).

기도 제목 / ① 순종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는 폭도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회심(回心) 전후를 비교하면서 복음을 변론합니다. 이 같은 변론은 바울 자신이 왜 유대 정통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기독교로 회심하였고 또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출신 배경을 밝힌 뒤에(1-4절), 어떻게 해서 자신이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5-16절),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변론합니다(17-21절).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분노와 증오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바울을 해치려 했고,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행사하여 천부장의 보호 하에 위기를 모면합니다(22-30절).

여기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 위기를 넘긴 것은 눈앞에 닥친 핍박을 두려워 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만일 바울이 핍박을 두려워했고 그 것을 피하고자 했다면,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 위기를 넘긴 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까지 자신의 몸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과 핍박 속으로 일부러 몸을 내던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성도는 비둘기 같이 순결하되, 또한 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마 10:16),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의 건설 사업에 최상의 선(善)을 이루어야 합니다.

비둘기 같이 순결하되 또한 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세상의 핍박을 지혜롭게 이기게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허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앞 장에 기록된 바울의 변론이 유대 군중들을 향한 것이었다면, 본 장에 기록된 바울의 변론은 산헤드린 공회원을 향한 것입니다(1-10절), 바울의 변론을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지만, 천부장에게 그 소식이 미리 전해짐으로써(11-22절), 바울은 가이사라 총독 벨릭스에게 비밀리에 호송되었습니다(23-35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방인 천부장의 손을 통해서라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하셨고, 장차 로마로 향해 출발하게 될 항구 도시 가이사랴로 그를 옮기심으로써 자신의 종을 안전하게 보호하셨으며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빈틈없이 진행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헤아려 보면 헤아려 볼수록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본 장에서 우리는 바울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1절). 그는 담대하고 확신 있는 신앙으로 일관했습니다(2-3절). 또 어떤 경우든 성경에 충실했습니다(5절). 그는 순결하되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6-10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흑암(黑暗)에 비유될 정도로 그 영적, 도덕적 면면들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의 생활로써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슬기롭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언제나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교제를 위해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바울처럼 담대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보며 거룩한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 주권을 깨닫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일이 곳곳에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가이사라 주재의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행해진 바울의 재판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비밀리에 가이사라로 호송된 사실을 알게 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가이사라까지 뒤 따라가서 더둘로라는 변사(辯士)를 내세워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1-9절). 이에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당당하게 변론합니다(10-21절). 하지만 벨릭스는 2년 동안 판결을 유보합니다(22절-27절).

본 장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인물(人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겉으로 볼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뜻에 결코 순종치 않는 유대인 무리입니다. 둘째, 무엇이 옳고 진실한 것인지 잘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애매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총독 벨릭스입니다. 셋째,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진리를 힘써 증거하고 불의(不義)와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사도 바울입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이해 관계에 얽매어 진리를 외면하는 풍조가 만연된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는 무엇보다도 경건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벨릭스와 복음에 대해 오직 한 마음만 품었던 바울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이 둘 중 누구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벨릭스처럼 말씀에서 떠나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를 위하여 충성하게 하소서. ② '충현선교훈련원' (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총독 벨릭스의 애매 모호한 태도 때문에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어야 했던 바울은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다시 한번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1-5절). 그러나 이번에도 바울의 변론은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를 물리칩니다(6-12절). 그리고 총독 베스도는 로마 황제(가이사)의 직접 재판을 요구하는 바울에 관하여 아그립바 왕의 조언과 도움을 청합니다(13-37절).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해치려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열심이 조금도 식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기 위해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활동하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단의 세력들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서 사단의 계략에 대비하고 세상의 불의와 죄악에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죽음도 사양치 않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바울처럼(11절), 오늘날 여러분의 행동은 양심에 거리낌없이 누구 앞에서라도 떳떳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에게 계속하여 자기를 변명할 기회가 주어진 사실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그리고 그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이용한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웁니까(13-22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좋은 상황에서든, 나쁜 상황에서든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을 뛰어 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사단의 전술을 파악하여 이기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총독 베스도의 요청으로 바울의 재판에 개입하게 된 아그립바는 바울로부터 바울 자신의 일생과 회심 과정, 그리고 전도 활동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듣습니다(1-23절). 그리하여 결국 아그립바 왕은 바울의 무죄를 인정하지만, 이미 바울이 로마 황제(가이사)의 직접 재판을 요구한 사실로 인해 석방이 불가능함을 지적합니다(24-32절). 본 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변론을 통해 그저 자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재판하는 총독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향해 미쳤다고 조롱하는 베스도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바울의 확신 있는 자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전도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본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만 허락 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1-3절). 그리고 각자의 간증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4-18절). 또한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16-18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바울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라도 기꺼이 드러낼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보십시오(29절).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이후 십자가 중심으로 과거의 삶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19-23절)?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주소서. ② 전 주일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로마 황제(가이사)의 직접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를 향해 출발한 바울 일행의 항해(航海)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항'(美港)에서 겨울을 보내고 출발하라고 권고하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다가(1-12절), 결국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파선 위기에 처합니다(13-20절). 하지만 단 한 사람의 목숨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바울의 예언대로(21-26절), 모두들 멜리데 섬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27-44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의 축복이 미치게 하려는 바울의 앞길을 바다의 풍랑마저도 방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의 구원 계획을 진행시키려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친히 동행하셨기 때문에, 결국 바울은 물론이고 그의 일행까지 풍랑으로부터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일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자기의 계획을 친히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1-8절).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충고를 무시한 뱃사람들은 결국 큰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9-20절). 여러분도 혹시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을 따라 일을 처리하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권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풍랑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했던 바울처럼(21-26절), 여러분도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은혜를 주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 28장은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행한 두 가지 이적을 언급하고 있으며(1-10절), 이어서 멜리데 섬을 떠나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11-15절). 또한 본 장은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과 바울 사이에 이루어진 두 번의 만남을 언급하고(16-28절), 바울의 로마 체류 및 전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사도행전을 끝맺고 있습니다(29-31절).

이처럼 바울이 그토록 열망하였던 로마에서의 복음 전파에 대해 좀더 상세한 언급이 없이 마무리되고 있는 본 장의 내용은, 성경의 독자들에게 아쉬움을 남김과 동시에, 오늘날 세계 선교의 사명이 여전히 미완성(未完成)의 과제로 우리 앞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교훈해 줍니다. 실로 바울로부터 불붙기 시작한 세계 선교의 열정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떻게 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지를 생생히 일깨워 줍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이적으로 인해 미개한 토인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1-10절), 우리는 듣는 이들이 아무리 미개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마음을 능히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인 형제들로 인해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11-15절). 오늘날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에서의 복음 전도가 처음에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바울의 전도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의 열매가 금방 나타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주역이 되게 하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효과적인 구역성경공부를 위한 가이드

이번 6월호부터 구역공과와 내용이 수정 및 보완되었기에 본 구역공과와 효과적인 사용 방법을 몇 달 간 부록으로 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구역성경공부를 인도하시는 분들은 이 가이드를 자세히 읽어 보시고, 본 구역공과와 효과적인 사용 방법에 따라 구역성경공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교재의 전체적인 구성 및 효과적인 사용법

본 구역공과는 위임 목사님의 설교문을 읽고 개인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그것을 구역예배에서 함께 나누고 배우도록 돕는 교재입니다. 본 구역공과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 들어가면서 - 각 과의 학습 목적을 생각해 보고 마음을 준비하는 단계

2단계 : 머물면서 - 성경본문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단계
설교문을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한 후에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면서 정리하는 단계

3단계 : 나가면서 - 각 과를 정리하고 주어진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는 단계

6월호 제 1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선물'의 구역공과를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본 구역공과의 효과적인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어떤 태도, 어떤 방식으로 대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심정을 품고 계시며 또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을 대해 주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하 생략

개인➡ 이 부분은 각 과의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동기를 부여해 주고 각 과의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결코 이 부분을 소홀히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가볍게 읽고 서둘러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적힌 글을 읽고 왜 이런 내용의 공부가 필요한지, 또 이런 내용을 공부함으로써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런 내용의 공부와 관련하여 배우고자 하는 관심 내지 열심이 생겨날 것이고, 좀 더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역장➡ 구역성경공부 인도자는 이 부분을 그대로 읽으면서 구역성경공부를 시작해도 좋고, 아니면 자신의 말로 소화해서 설명하면서 구역성경공부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이번 과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구역식구들의 마음속에 생겨나도록 이 부분을 힘주어 설명하십시오.

2 단계 : 머물면서

ㄱ. 본문 관찰

본문을 읽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마지막 설교(요 14-16) 가운데 제일 끝 부분입니다.(이하 생략)

개인➡ 여기에서 여러분은 성경 본문을 직접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본문의 배경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어느 본문이든 그 본문의 배경을 알면, 각각의 구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읽고 각각의 구절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힘써 보십시오.

구역장➡ 구역성경공부 시간에는 이 부분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본문을 함께 읽은 다음에 곧바로 관찰 문제를 다루면 됩니다.

관찰 문제 ① 29절-30절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신앙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개인➡ ‘관찰 문제’는 주어진 성경 구절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관찰해 보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려운 질문이 거의 없습니다. 주어진 문제와 관련하여 성경 본문을 읽어보고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그대로 대답하면 됩니다. 다만,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알아야 답하기가 쉬우니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 똑같은 꽃을 보고도 본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본문을 보고도 본 사람마다 생각이나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역성경공부 인도자는 구역 식구들이 다양한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조성해야 합니다. '정답' 만 말하는 분위기, 틀리면 따가운 눈총을 받는 분위기는 안 되겠지요.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조용한 장소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설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의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아래의 질문을 풀어 보십시오.(이하 생략)

개인 ➡ 개인적으로 설교문을 읽으실 때 지키면 좋을 방법을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설교 테이프를 듣거나 설교문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실제로 설교를 듣는 마음으로 테이프를 듣고 설교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조용한 장소를 찾아 그 자리에서 설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읽은 내용을 가지고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본 교재의 문제를 푸는 것은 그 다음 일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문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역장 ➡ 구역 성경공부 인도자는 구역 식구들이 설교문을 어떻게 읽었는지 점검해 보고, 설교문을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십시오.

본 구역공과에서 사용되는 질문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님은 제자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예수님이 오늘 당신의 속마음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은 솔직한 느낌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이런 사실을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개인➡ 첫 번째 유형의 질문은 단락의 핵심 내용을 짚어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점해 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질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을 것이며 성경 공부도 형식적인 공부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을 피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점점해보고 서로 나누도록 합시다.

구역장➡ 이런 유형의 문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반성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구역 식구들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구역 식구들에게는 이런 유형의 문제의 취지와 유익을 잘 설명해 주도록 하십시오. 또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구역 식구들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신앙의 부족함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잘 인도하십시오.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 함께 느끼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통하여 다 함께 겸손하게 되며, 신앙적으로 더욱더 분발해야 한다는 결심을 다 함께 하도록 잘 인도해야 합니다.

③ 변함없는 사랑의 예수'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미리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신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및 참고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신락하셨던 증거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느낀 바를 한 가지씩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눅 22:31-34 / 요 21:1-17

개인➡ 두 번째 유형의 질문은 참고 성경 구절을 주고 단락의 핵심 내용을 좀 더 깊이 알아볼 것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질문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양한 성경 구절을 묵상하게 함으로써 성경의 진리를 더욱더 명확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확신케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을 풀 때는 반드시 참고 성경 구절을 찾아 읽어보고 깊이 묵상한 다음에 답을 기록해야 합니다.

구역장➡ 구역성경 공부 시간에는 굳이 참고 구절을 다 함께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성경공부 시간에 이미 한 번씩 다 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도자는 혹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여백에 참고 구절을 옮겨 놓아 필요할 때 읽어주도록 하십시오.

⑦ 참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를 향하여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또는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한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 말해 보십시오.

개인➡ 세 번째 유형의 질문은 각 과의 성경 공부를 총정리하는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 문제를 풀면서 앞의 모든 내용을 다시 한 번 복습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만일 성경공부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 질문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구역장➡ 구역 성경공부 시간에 앞의 질문들을 공부하느라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이 질문은 생략하고 제 3 단계로 나아가 정리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제 3 단계: 나가면서

나가면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악함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이하 생략)

개인➡ 이 부분은 위임 목사님의 설교의 결론 부분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소리 내어 읽음으로써 공부를 마무리하십시오.

구역장➡ 성경공부 시간이 끝나갈 무렵이 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부산해지기 쉽습니다. 인도자 역시 빨리 정리하고 마치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구역 성경공부 인도자는 구역 식구들의 마음을 정돈시키고 이 부분을 차분하게 함께 읽어나가도록 잘 인도해야 합니다.

기도

- 1 우리를 세심하게 아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 2 주님의 이런 마음을 인해서 주님 앞에 더 장작하게 하고, 장래 일이나 실패나 결점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소서.

개인➡ 늘 첫번째 기도제목은 공부한 내용을 기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구역장➡ 구역 성경공부 인도자가 구역 식구들의 형편을 살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몇 가지 더 정해주고 기도하면 좋을 것입니다.

구역성경공부 인도자를 위한 몇 가지 지침

(1) 수요일에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구역성경공부 인도자는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오전부터 다음 주일 설교문을 미리 읽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본 공과를 가지고 개인적인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공부가 되도록 하십시오. 아무리 늦어도 화요일 저녁까지는 개인적인 공부를 마쳐야 합니다. 수요일에 있는 구역장영성훈련에 가서 배운 뒤에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도록 하십시오. 수요일에 시작하는 것은 정말 너무 늦습니다.

(2) 구역장 영성훈련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수요 구역장영성훈련 시간에는 각 교구 목사님께서 각 공과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열심히 참석하여 여러분이 미리 공부해 놓은 공과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궁금한 점들을 교구목사님께 질문하여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3) 본 구역공과의 흐름과 내용을 숙지하십시오.

각 공과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머리 속에 정리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구역공과를 더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역공과 시간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본문 관찰 문제는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미리 준비를 해 두고, 설교 읽고 나누기 문제의 경우 어떤 문제에 더 많은 시간

을 할애할 것인지 정해 놓으십시오. 각 구역 식구의 영적 상황을 잘 생각해 본 후에 구역 식구들에게 더 긴급하게 필요한 문제, 또 그들에게 더 유익할 문제를 선택하여 그 문제를 더 심도 있게 다루면 좋을 것입니다.

(4)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인성경공부 시간에는 문제를 다 풀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구역성경공부 시간에는 모든 문제를 다 풀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푸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두 문제라도 구역 식구들이 함께 마음을 열고 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서로의 영혼을 돌아보는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5) 구역 식구들의 개인성경공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구역 식구들이 개인 성경공부를 하지 못하거나 개인 성경공부를 어렵게 느끼면 구역 성경공부에 나오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자연히 구역 성경공부 모임을 멀리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역 인도자는 매일 구역 식구들이 위임 목사님의 설교문을 읽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일을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6) 구역 성경공부 모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구역 성경공부 시간에 모든 구역 식구들이 참석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가운데 큰 영적 유익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제 1 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선물

✧ 찬송 / 97장(위에 계신 나의 친구)

✧ 본문 / 요 16:29-33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를 어떤 태도, 어떤 방식으로 대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 13:8).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대하셨던 방식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심정을 품고 계시며 또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을 대해 주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바로 알게 될 때, 여러분은 마음에 참된 기쁨과 감사를 갖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심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잘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더욱 더 확고하게 합시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먼저 본문을 읽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의(요 14-16) 제일 끝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긴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보인 신앙적인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아래의 질문을 중심으로 각 구절의 내용을 자세히 관찰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업은 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성경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① 29절-30절: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삽나이다”라고 신앙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② 31절-32절: 예수님은 제자들의 확신에 찬 고백을 기뻐하시거나 칭찬하시는 대신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 ③ 33절: 앞 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언급하신 후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언급하신 바로 다음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을까요?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조용한 장소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선물’의 설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의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아래의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의 답을 기록하되, 앞으로 구역예배 공과공부 시간에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기록하십시오.

①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님은 제자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예수님이 오늘 당신의 속마음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의 느낌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이런 사실을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답)

②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아시는 예수'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 내 '약점', '실패', '결점' 등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고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여기에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해도 괜찮은 것을 한두 가지 골라서 말해 보십시오.

답)

③ '변함없는 사랑의 예수'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사랑하고 신뢰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및 참고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신뢰하셨던 증거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느낀 바를 한 가지씩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눅 22:31-34 / 요 21:1-17)

답)

④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의 단락을 읽고...

질문)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특성과 하나님의 특성은 각각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과 연결시켜 이것을 생각해 보고 말해 보십시오. (딤후 2:13)

답)

⑤ '자비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언급하신 바로 다음에 33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보고 여러분이 느낀 바를 말해 보십시오.

답)

⑥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예수'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랑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은 장래 일이나 실패나 불행이나 결점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지금까지 취해온 태도와 이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결심하게 된 태도를 비교해서 말해 보십시오. (롬 8:38,39 / 시 119:1-2, 23-24)

답)

⑦ '참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를 향하여'의 단락을 읽고...

질문)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인상 깊게 느꼈거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한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 말해 보십시오.

답)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의 약함은 죄로 인해 생기는 것이며 예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점을 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그 자체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한없이 베풀어주시는 생명의 선물은 그 어떤 가치 있는 보석보다도 귀한 것이므로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천지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주시는 선물에 비교될 수 있는 선물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가 이러한 선물을 얻거나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은 은혜이며, 그 은혜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곳, 그의 십자가로 발걸음을 향하는 자들만이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

1. 우리를 세심하게 아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2. 주님의 이런 마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 정직하게 하시고, 장래 일이나 실패나 결점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소서.

제 목 :

परिचयः

- 54 -

제 2 과 ● ● ● ● ● ● ● ●

농부와 참 포도나무

※ 찬송 / 93장(예수는 나의 힘이요) ※ 본문 / 요 15:1-2

들어가면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반대로, 인간이 누리는 모든 행복과 안전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바로 아는 데서 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며 그것을 실제로 소유해야 합니다.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아듣기 쉬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정립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도록 합시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남겨질 자신의 제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대한 진리를 요한복음 14장 이하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 한 대목으로서 흔히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처럼 비유로 된 말씀은 비유로서 해석해야 옳음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본문의 각 문장이나 표현에 지나친 뜻을 첨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유로 된 말씀을 읽을 때에는 언제나 비유 자체보다는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왜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겸손한 질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아래의 질문을 중심으로 각 구절의 내용을 자세히 관찰해 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성경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 ① 1절: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각각 농부와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 ② 5절: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우리를 각각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 ③ 2절: 과실을 맺는 가지와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그 결말(結末)도 서로 다릅니다. 2절을 읽고, 과실을 맺는 가지의 결말과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의 결말을 각각 적어 보십시오.

- ④ 4-5절: 과실을 많이 맺는 비결을 말씀해 주는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내 안에'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조용한 장소에 앉아서 '농부와 참 포도나무'의 설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읽은 바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묵상의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아래의 질문을 풀어 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의 답을 기록하되, 앞으로 구역예배 공과공부 시간에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기록하십시오.

-
- ① '포도나무의 비유'의 단락과 '포도나무를 심어야 했던 이유'의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무엇을 깨닫고 느끼게 됩니까?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답)

- ② '돌보시는 사랑'의 단락을 읽고...

질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행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포도원을 잘 돌봐 주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이 있는지 돌아보고, 생각나는 것을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사 27:3)
답)

- ③ '가지치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 버리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처음에는 많았지만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들 모두를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역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깨닫습니까?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답)

④ '열매를 맺는 비결'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열매를 맺는 비결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답) 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 되는지 여러분 자신의 신앙 생활 경험과 연관시켜서 말해 보십시오.

답)

⑤ '중보자이신 예수님'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우리의 열매 맺는 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다른 성경 구절도 참고하면서 묵상해 보고 말해 보십시오. (요 17:20-24 / 롬 8:34)

답)

⑥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을 갈망하라'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오직 그리스도와 참으로 연합한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에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엡 2:1-13)

답)

-
- ⑦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인상 깊게 느꼈거나 새롭게 깨달은 것을 한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가 성장하는 것을 세심하게 보살피 주십니다. 그래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시나,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욱더 풍성히 맺도록 다듬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자신을 일치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의 연합은 곧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지키시는 농부이십니다. 농부되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생명 없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많은 과실을 맺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

1.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를 은혜로 불러 주시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늘 거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제 3 과 ○○○○○●●●●●

하나님의 후사

✧ 찬송 / 493장(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 본문 / 롬 8:17

들어가면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나약하고 침울하며 비참한 사람들로 여기지만,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우며 복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진리를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생기(生氣)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으며 희미한 기쁨과 희미한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영광된 신분과 존귀한 위치를 자주 말해 줍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좇아 그리스도인의 그 영광된 신분과 존귀한 위치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 삶에 영적인 생기와 찬란한 기쁨과 소망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영광된 신분과 지위를 배워 봅시다. 우리에게 이런 지식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 또한 증가할 것이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공부의 중요성을 먼저 숙지하고 오늘의 본문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영광된 신분과 지위를 명확하게 배우고 확신하도록 합시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로마서 8장 전체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얻은 구원의 풍성함과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후사(後嗣)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은 참으로 크고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아래의 질문을 중심으로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관찰해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성경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 ① 17절: 이 구절에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표현이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표현과 각각의 표현이 나타내는 뜻을 간략하게 적어 보십시오.
- ② 17절: 이 구절의 앞부분을 읽고, 후사(後嗣)가 되기 위하여 먼저 필요한 신분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 ③ 17절: 이 구절의 뒷부분을 읽고, 그리스도인의 영광된 신분과 함께 언급된 것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조용한 장소에 앉아서 '하나님의 후사'의 설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읽은 바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의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아래의 질문을 풀어 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의 답을 기록하되, 앞으로 구역예배 공과공부 시간에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기록하십시오.

① '영광의 회복을 향하여'의 단락을 읽고...

질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누렸던 영광스러운 신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타락 이후에 인간의 신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인간의 신분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창 1:27-2:15 / 롬 1:18-3:2 / 요 1:12)

답)

② '자녀이면 곧 후사'의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지적해 보고,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된 방법을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요 3:3 / 요 1:12-13 / 엡 1:3-6)

답)

③ '누가 후사인가?'의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설교 본문에 인용된 아래 몇 구절을 읽고 그 특징을 정리해서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런 특징이 얼마나 분명하게 있는지 점검해 보고 말해 보십시오. (롬 8:14 / 갈 4:6 / 골 3:10)

답)

④ '모든 후사가 동등'의 단락을 읽고...

질문)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동등한 후사이며, 이 후사됨은 변경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히 6:17-18)

답)

⑤ '위대하고 놀라운 후사'의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은 경이롭고 위대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성경 구절을 참조하여 묵상해 보고 말해 보십시오. (고전 3:21, 딤후 37, 히 11:17, 약 2:5, 계 21:7)

답)

⑥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의 단락을 읽고...

질문)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라는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단락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정리해 보고 여러분의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답)

⑦ '영광을 위한 고난'의 단락을 읽고...

질문)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 된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롬 8:17-18 / 빌 1:29)
답)

⑧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인상 깊게 느꼈거나 새롭게 깨달은 것을 한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

주님 안에서 가족 되고 친구 되신 사랑하는 총현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누릴 우리의 이 축복을 기억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가 됩시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축복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기도

1.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사 영광의 후사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2.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후사됨의 영광을 더욱더 분명히 보게 하사 헛된 이 세상을 사랑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제목 :

본문 :

코리

제 4 과 ●●●●●●●●

참 영광

✠ 찬송 / 545장(하늘가는 밝은 길이) ✠ 본문 / 고후 3:1-18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부름 받은 사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은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담대함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배우도록 합시다.

머물면서(본론)

1. 본문 관찰.

일찍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온 후에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하는 자로서 이처럼 큰 영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역, 곧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말하면서 모세의 그 영광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인즉, 율법을 전하는 직분도 이처럼 영광스러웠다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은 그보다 더욱더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으나, 이런 맥락을 따라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 좋을 것입니다. 먼저, 아래의 질문을 중심으로 본문 각 구절의 내용을 자세히 관찰해 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성경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 ① 1절-5절 :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처럼 사람들의 추천이나 천거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2,3절)?
- ② 6절-11절: 여기에서 바울은 율법을 전했던 모세의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설명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영광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각각의 뜻을 잘 생각해 보고 아래 예(例)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번호를 괄호 안에 써 보십시오.

새 언약의 일꾼(6절) ()

죽이는 의문(6절) ()

살리는 영(6절) ()

둘에 새긴 의문(7절) ()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7절) ()

영의 직분(8절) ()

정죄의 직분(9절) ()

의의 직분(9절) ()

없어질 것(11절) ()

길이 있을 것(11절) ()

예 ① 율법 ② 그리스도인 또는 복음의 사역자 ③ 성령 ④ 복음

③ 12-13절: 여기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율법을 전하는 사역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을 담대히 전한다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을 여기에 그대로 옮겨 써 보십시오.

④ 14-16절: 여기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 아래 살고 있으며 그들은 아직도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는 무지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어떻게 벗을 수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⑤ 17-18절: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 큰 유익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 두 구절을 여기에 그대로 옮겨 써 보십시오.

2. 설교읽고서로 나누기

조용한 장소에 앉아서 '참 영광'의 설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읽은 바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의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아래의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의 답을 기록하되, 앞으로 구역예배 공과공부 시간에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기록하십시오.

① '사도 바울이 던지는 두 가지 질문'의 단락을 읽고...

질문) 이 단락에서 설교자는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질문을 우리들에게 곧바로 적용시켜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자천(自薦)할 필요도 없으며, 또 어떤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리스도인 됨에 대하여 추천서를 쓸 필요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그런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 이유를 설교문에서 찾아보고 좀 더 깊이 묵상한 후,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답)

②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참 영광'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이 단락에서 설교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편지가 심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편지 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속에 어떻게 그런 편지가 심겨졌는지 말해 보십시오.

답)

③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 의 단락을 읽고...

질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함으로 써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면서 힘들어합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적합한 자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고 늘 걱정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켜 말해 보십시오.

답)

④ '율법보다 탁월한 복음'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이 단락에서 설교자는 본문 가운데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율법을 전하는 사역보다 훨씬 더 탁월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며 선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단락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온 내용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깊이 묵상해보고 느낀 바를 말해 보십시오.

답)

문명문명

문명문명문명문명문명문명

문명문명문명문명문명문명

문명문명문명문명문명문명

⑤ '생명과 자유를 주는 복음' 의 단락을 읽고...

질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유익을 찾아보고 여러분 자신은 그런 유익을 얼마나 누리고 사는지 말해 보십시오.

답)

-
- ⑥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또는 새롭게 깨달은 것을 한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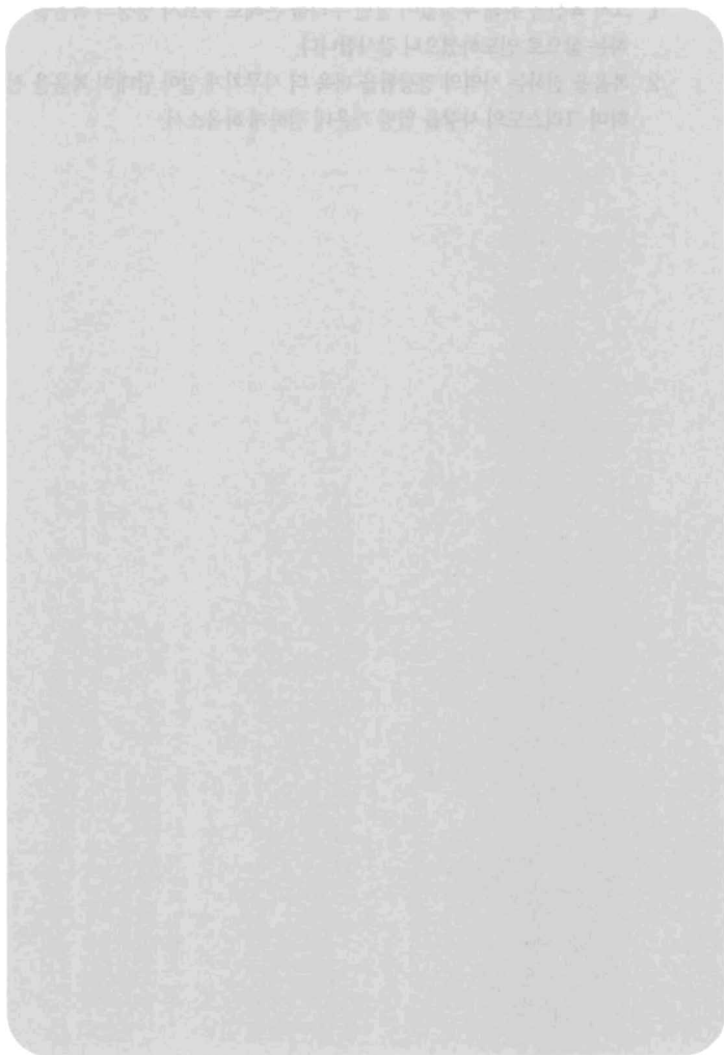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두 새 언약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생명과 자유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마 28:18-20).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사역은 크고 작은 우리의 모든 행함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삶 속에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자격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영광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더욱더 새롭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기도

1. 그저 육신을 위해 부질없이 살던 우리를 은혜로 부르사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2.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영광됨을 더욱 더 사무치게 알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열방 가운데 전하게 하옵소서.

제목 :

본문 :



제 5 과 ●●●●●●●●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라

✧ 찬송/344장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어도 ✧ 본문/창 12:1-3

들어가면서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히 11:6).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거나 반성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참으로 믿음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과거 삶은 믿음의 삶이었습니까? 여러분은 현재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는 믿음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참된 믿음과 믿음의 삶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 믿음의 삶인지 배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제자들과 함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눅 17:5)라고 간구합시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몇이나 볼 수 있겠냐고 회의적으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참으로 믿는 자들이 그만큼 적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여러분이여, 정말로 여러분은 참된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살고 있습니까?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본토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소명(召命)을 받은 사건과 그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쉬움 점은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소명을 받았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짧다 하더라도 이 기록을 살펴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참된 믿음과 믿음의 삶의 원리를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의 질문을 중심으로 본문 각 구절의 내용을 자세히 관찰해 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성경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① 1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순종하기 어려웠을까요?

② 1절: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확한 목적지와 여행 경로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 ③ 2,3절: 순종하기 어려워 보이는 명령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답변 문답 1

- ④ 4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바는 무엇입니까?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조용한 장소에 앉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라'의 설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읽은 바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묵상의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아래의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의 답을 기록하되, 앞으로 구역예배 공과공부 시간에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묵상하고 기록하십시오.

① '심판에 감추인 은총'의 단락을 읽고...

질문)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읽으면서, 특별히 창조, 인간의 불순종, 죄, 하나님의 심판,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 등에 관하여 여러분이 인상적으로 느낀 것을 한 가지 이상 말해 보십시오.

답)



② '계속되는 사랑과 자비'의 단락을 읽고...

질문) 홍수 심판, 노아의 방주, 바벨탑, 언어의 나뉘 등에 관한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무엇을 깨닫고 느끼게 됩니까?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답)

③ '오직 말씀을 붙잡고'의 단락과 '순종으로 증명된 믿음'의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을 보면서 여러분이 믿음에 관하여 깨닫는 바를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오
답)



④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도'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것입니까? 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반응할 때 얻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복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막 1:17-18 / 엡 1:9-10 / 요 3:16)
답)

⑤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현재 삶 속에서 특별히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말해 보십시오. (수 24:23)

답)

⑥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인상 깊게 느꼈거나 새롭게 깨달은 것을 한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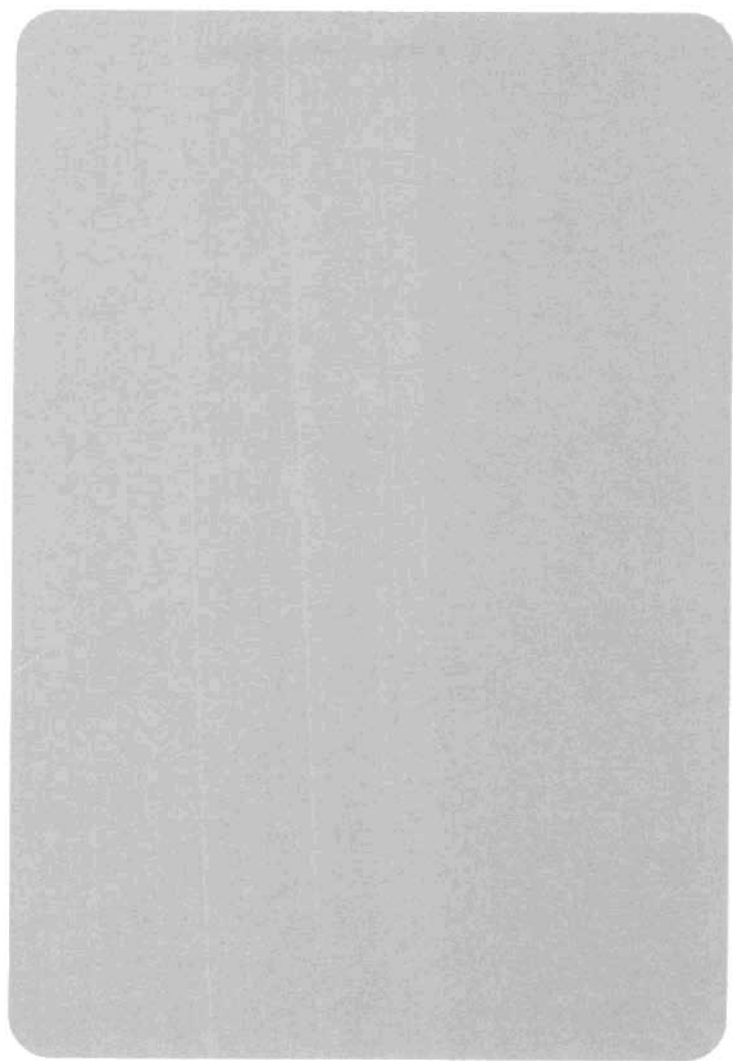
나가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 교육, 기술에 대한 과도한 신뢰, 혹은 모험적인 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 형제, 자매, 혹은 친구와 더불어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노아의 홍수는 온 땅을 쓸어버렸으며, 바벨탑에 모인 인류는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창조물인 인류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통해 얻게 될 무한한 축복을 약속하셨으며, 그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수 24:33). 아멘!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물질적인 것들과 인간적인 욕망들을 떨쳐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을 섬기십시오. 아멘!

1.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늘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2.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늘 성장하여 견고한 믿음이 되며 우리로 하여금 생생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목 :

본문 :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제5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남성도구역공과' 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5과' 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토동배배두코방서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찬송가
성경봉독	성경본문
메시지 낭독	말씀
기 도	기도
주기도	주기도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3년 6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김익환(1-6일), 장 훈(7-12일), 임현덕(13-18일),
최종철(19-25일), 허종철(26-30일) 목사

· 구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